



광저우 아시안게임 D-9

메인스타디움
막바지 준비 한창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열을 앞둔 2일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사진은 대회 메인 경기장인 링난 피얼 체육관. <광저우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제공>

U-20 월드컵 8강 주역 ‘골잡이’ 김동섭 광주서 뛴다

광주FC 14명 우선 지명...최만희 감독 “이달 중순 훈련 돌입”

지난해 이집트 U-20(20세 이하)월드컵 8강 주역 김동섭(21·일본 시미즈·사진)이 내년부터 프로축구 K-리그에 참가하는 광주 시민프로축구단(광주FC) 유니폼을 입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김동섭이 포함된 광주FC의 신생팀 우선 지명 선수 14명을 공식했다.

서울 세일중학교 3학년이던 2004년에 15세 이하(U-15) 대표팀에 처음 뽑힌 뒤 연령별 대표팀을 거쳐온 김동섭은 한국 축구의 스트라이커 계보를 이을 재목이다. 189cm, 79kg의 좋은 체격 조건을 갖춘 김동섭은 스피드를 이용한 빠른 돌파와 대포알 같은 슈팅이 강점이다.

김동섭은 서울 대동초등학교 단거리 육상 선수 출신으로 100m를 11초대에 돌파하는 뛰어난 주력을 앞세워 장신을 이용한 타깃형 스트라이커에 안주하기보다 힘과 기교를 이용해 직접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장훈고 2학년 때인 2006년 8월 포항에서 열린 제61회 전국고교축구선수권대회에서 3골 4

어시스트를 기록, 대회 최우수선수(MVP)로 뽑힌 그는 고교 최정상급 골잡이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지난 2007년 J리그 시미즈 에스펄스에 입단해 2년 동안 2군에 머물면서 기량을 키울 기회를 얻지 못했고 J2리그 도쿠시마로 임대되면서 반전을 노려왔다. 그는 도쿠시마에서 J2리그 10경기에 나서며 성인 무대를 경험했고, 지난해 U-20 월드컵에도 출전에 해결사 노릇을 푼 적이 있다.

광주FC는 김동섭 외에 일본 산프레체 히로시마를 거쳐 현재 실업 축구 내셔널리그에서 뛰는 미드필더 조우진(23·목포시청)과 고려대 수비수 이용 등을 우선 지명했다. 광주FC는 이로써 유소년 클럽 출신의 급고고 졸업예정자 홍태곤 등을 포함해 18명의 선수를 확보했다.



■ 광주 FC 우선 지명 선수

순	선수명	생년월일	포지션	최종소속/학력
1	박현	88.09.24	MF	인천대(졸업)
2	박희성	87.04.07	MF	호남대(졸업)
3	유종현	88.03.14	FW	건국대(졸업)
4	유동민	89.03.27	FW	초당대(재학)
5	이승기	88.06.02	MF	울산대(졸업)
6	임하람	90.11.18	DF	연세대(중퇴)
7	김은선	88.03.30	MF	대구대(졸업)
8	임선영	88.03.21	MF	수원대(졸업)
9	김수범	90.10.02	DF	상지대(재학)
10	안동혁	88.11.11	MF	광운대(재학)
11	이용	89.01.21	DF	고려대(졸업)
12	박기동	88.11.01	FW	일본 FC기후
13	김동섭	89.03.29	FW	일본 시미즈
14	조우진	87.07.07	MF	목포시청

광주FC 초대 사령탑인 최만희 감독은 “이달 중순부터 이들 선수들을 훈련에 합류시켜 내년 시즌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쏘나타 K-리그 2011 신인선수 드래프트는 오는 9일 오전 9시30분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다.

신인선수 지명순서는 전년도 팀 성적과 관계없이 전 구단이 같은 조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G 한국대표팀은 ‘글로벌 드림팀’

석하정 등 귀화선수 외국인 코치 등 호화 멤버 구성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열을 앞둔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는 한국대표선수와 코치진들이 모두 토종 한국인은 아니다.

‘코리아 드림’을 안고 한국 땅을 밟은 귀화 선수나 이역만리에서 한국의 금메달 사냥을 돕는 외국인 코치 등 ‘다국적 멤버’들도 출신 국가나 국적은 다르지만 모두 똑같이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뛴다.

여자 탁구 대표팀의 석하정(25·세계랭킹 15위)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여자 단체전 동메달로 귀화선수 1호 메달리스트가 된 당에서(29의 뒤를 잇는 차체대 에이스다. 중국 라이오싱성 출신으로 2001년 대한항공 훈련 파트너로 한국에 와 2007년 한국 국적을 취

득한 그는 지난해 1월 대표팀 상비군에 발탁되면서 처음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지난 9월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전 종합 1위로 대표팀에 승선했다.

남자 농구 대표팀에는 국제대회 규정상 딱 1명만 허용되는 귀화 선수 부문에 강력한 후보 전태풍(KCC)을 제치고 승선한 이승준(삼성)이 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48경기에서 평균 15.3점에 7.1리바운드를 기록한 이승준은 206cm, 107kg의 뛰어난 신체조건에 접점이 뛰어나다.

외국인 지도자들의 활약도 기대를 모은다. 중국 출신의 리마오 코치는 배드민턴 대표팀에서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한국 선

수들을 지도하고 있다. 육상 허들에서는 러시아 출신 셰르게이 티바소프(48) 코치가, 장대높이뛰기에서는 ‘인간새’ 부브카를 지도했던 시르비라 아르카디(50·우크라이나) 코치가 한국 대표선수들을 조련하고 있다.

멀리뛰기와 세단뛰기는 랜들 헨팅턴(56·미국) 코치가, 창던지기는 카리 이하라이넨(53) 전 핀란드 국가대표 감독이 뛰고 있다.

케리 레온 에벤스(41·미국) 코치는 400m 계주팀을 지도하고 있고, 마티아스 바우만(47·독일) 트레이너는 종합 마술 대표팀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기계체조에서는 러시아 출신의 마리아 블라센코(52) 코치가 여자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다. /연희뉴스

시민건강 걷기대회

“선열들의 숭고한 민족·독립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자”

올해로 81주년을 맞이한 11.3학생독립운동을 기념, 그 정신을 계승하고 이제 우리는 제이름을 찾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은 이름만 찾아오는데 머물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그 이름에 걸맞게 예우하며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정신을 계승하는 “시민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오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일 시 | 2010년 11월 7일(일) 오전 9시
장 소 | 광주상무시민공원
참가종목 | 건강걷기(3Km)~
참가비 | 무료
참가문의 | 062)515-8888/ 369-1955 Fax, 062)515-5665

참가자에게는 (주)그린알로에에서 알로에와 허브가 함유된 순수 자연성 고급 미용비누 1세트(2만원) 및 간식을 제공해드립니다.

- 주 최 | CNV 21 방송, 행복나눔 실천연대, 서중·일고55회
- 주 관 | 광주광역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학생독립운동연구원
- 협 찬 | 진안홍삼, 그린알로에, 광주생산 CASS맥주, 문현화 댄스아카데미

- 후 원 | 광산대학교, 민족통일 광주광역시협의회, 서울올림픽국제봉사단체, 신채재장애인복지회, (사)사실련, 31사단, 광주시민단체 총연합, K 한국시민기자협회, 가락 광주광역시 청년회, 신지애골프아카데미추진위원회, 장성 대화레저관광농원, 금정클럽, 1인창조기업